

‘공끝’ 같고 닦은 장현식 “개막만 기다려”

KIA 핫플레이어

서재응 코치와 2군서 밀착 훈련
묵직한 직구에 변화구 경쟁력
자신감으로 멘탈도 무장
윌리엄스 감독 “1군 연습경기 선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장현식이 KIA 타이거즈 마운드의 ‘조커’로 뜬다.

KIA는 3일 합평 헬린저스 필드에서 라이브 피칭을 이어갔다. 이날 윌리엄스 감독이 가장 유심히 지켜본 선수는 장현식이었다.

장현식은 이번 스프링캠프를 2군 선수단에서 소화하고 있다. 합평에서 시즌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는 윌리엄스 감독이 선발 후보로 여러 차례 언급한 인물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앞서 한 차례 장현식의 볼펜 피칭을 지켜본 적이 있지만 라이브 피칭은 처음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훈련에 앞서 “볼펜 피칭은 봤었다. 그동안 장현식이 서재응 코치와 달리버리 부분을 조정해왔고, 마무리 단계다. 지난해에 볼펜 피칭 봤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다”며 “모든 구종이 좋았다. 그때 그 모습을 다시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했다.

라이브 피칭이 끝난 뒤 장현식은 “캠프하고 처음 뵈어서 던졌는데, 특별히 벗어나고 그런 것은 없었다. 컨트롤이 향상된 것 같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겨우내 준비한 부분이 결과로 나오고 있다. 장현식은 가장 뜨거웠던 비시즌을 보냈고, 서재응 코치와 밀착 훈련을 하면서 정점을 키우는 데 공을 들였다.

장현식은 “비시즌에 일요일만 쉬고 매일 혼자서 달리기도 하면서 준비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가장 열심히 했다. 작년엔 못했기 때문에 오기가 생겼다. 달리는 것도 많이 달리고 그렇게 한 달 한 달 하다 보니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다. ‘하면 되는구나’를 느꼈다”며 “6-7시간 훈련했다. 억지로 빼려고 해서 뺀 것은 아닌데 마무리 캠프 때보다 체중이 7kg 정도 빠졌다. 또 캠프하면서 팔이 못 버틸 때가 있어서 한 번은 쉬어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또 “합평에 있으면서 바꿔보자 생각하고 서재응 코치님처럼 한 달 동안 꾸준히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다. 공을 끝까지 안 던지고 멈추면서 끝난 동작이 많아서 공 끝이 힘이 없었다. 단순히 생각했다”고 과거에 나오는 것처럼 이어서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현식은 자신의 장기인 직구의 힘을 보여줬다. 여기에 장현식은 ‘변화구’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그는 “직구 하나만으로는 경기 풀어가는 게 쉽지 않다. 슬라이더와 직구만 던졌는데 두 가지를 추가했다. 포크는 슬라이더랑 각이 다르고 스피드 차이도 나서 타이밍 뺏을 때 도움이 될 것 같



KIA 타이거즈의 장현식이 3일 합평 헬린저스 필드에서 라이브 피칭을 하고 있다.

다”며 “스플리터는 스트라이크존에 비슷하게 던질 수 있는 감각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장현식의 또 다른 무기는 ‘마음’이다. 서재응 코치를 멘토 삼아 좋았던 모습을 찾고 있는 장현식은 본무대를 위해 갑을 갈고 있다.

2군에서 조용히 시즌을 준비했던 그는 “잘 준비해서 나중에 보여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잘하는데 안 쓸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준비했다. 직구는 끊지 않고 끝까지 연결할 수만 있다면 스피드는 올라

올 것이다. 공끝 그리고 제구에 신경 쓰고 있다”며 “조용히 있다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게 목표다. 개막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희소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도 “1군 연습경기 잡혀있을 때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며 “선발조 같은 경우 훈련량, 던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합평으로 나눠서 준비했다”고 장현식의 역할을 기대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퓨처스리그 총괄코치 이범호

“될성부른 떡잎 선택과 집중 1군 갈 선수 매년 1~2명 배출”

한눈에 보는 평가지표 마련
성적 외 파트별 컨디션도 점검
간절함 있는 선수에 기회 줄 것

이범호 총괄코치가 KIA 타이거즈 퓨처스 체질을 바꾼다.

KIA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퓨처스 리그를 이범호 총괄 코치 체제로 바꾸고 윌리엄스 감독 중심의 육성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대와 우려 속 막중한 역할을 맡은 이 총괄 코치는 ‘열정’과 ‘경쟁’을 바탕으로 왕조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이 총괄코치가 우선 강조하는 것은 그라운드에 대한 ‘열정’이다.

그는 “경기에 나가고 싶어 하고, 나가서 못했을 때 안타까워하는 선수가 많이 있어야 한다.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성장한다. 경기를 간절하게 생각하는 선수를 계속 경기에 내보낼 것이다”고 언급했다.

선수들의 생각부터 살피면서 ‘될성부른 떡잎’을 집중해서 키우는 게 이 총괄코치는 물론 KIA의 육성방향이다.

이 총괄코치는 “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3~4명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선수를 한 번에 다 육성할 수는 없다. 경기 나갔을 때 그냥 나가는 선수와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선수는 차이가 있다. 지금은 실력이 모자라도 나가서 전 경기를 하려는 선수가 나중에는 이긴다”며 “한 선수가 성장하려면 경기에 계속 나가야 한다. 1주일에 6경기 연속 뛰어도 행동이나 표정이 바뀌지 않는 선수를 육성할 생각이다. 9명이 나가면 9명이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육성 자원을 계속 경기에 내보내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경기에서 나가지 않는 선수는 코치들이 밀착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전력 상상을 위한 선수 육성과 훈련 ‘투 트랙 전략’을 말했다.

육성을 위해 ‘100패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이 총괄코치의 생각이다.

이 총괄코치는 “구단에서 100패를 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100패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선수 3명이 된다고 하면 그게 퓨처스에서 전승을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며 “내가 왜 경기를 나가는지, 구단이 어떤 생각으로 나를 출전 시켜주는지 일깨워 주겠다. 경기 출전을 당연하게 여길 경우 다시 경기에 들어가기 위해 1주일을 기다릴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년에 1군에 갈 수 있는 선수 1~2명을 만들어내고 다음 선수도 또 나오고, 그렇게 5년 이상을 육성해야 팀이 강해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5강 이하로 안 내려오는 팀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선수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다. 또 1·2군 선수들의 실력 차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판에서 세밀한 육성을 하기 위해 데이터도 주목하고 있다.

이 총괄코치는 “구단이 선수들의 평가 지표를 다 준비해놨다. ‘선수가 어땠고, 어떻게 훈련했는지’는 보고서를 매일 제출하고 전체 선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선택은 감독들이 하지만 한눈에 야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각 파트 별로 보고서를 쓴다”며 “예를 들어 4타수 1안타지만 잘 맞은 장면 타구 등이 많으면 4개의 행운의 안타를 친 선수보다 이 선수가 더 컨디션이 좋을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올려보내고 있다. 투수들 경우에도 10개를 던져서 5개가 불이 났다고 해도 ‘각이 좋았다’,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변화구는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야구한 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무실점 완벽투’만이 빅리거 ‘지름길’

텍사스 시범경기 등판 앞뒤

한 경기 당 5~7이닝만 열려

미끄러운 ML 공인구 적응

투구 수 40개 내 경기 운용 관건

미국프로야구(MLB)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거 승격에 도전하는 원소 투수 양현종(33)이 시범경기 첫 등판을 앞두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졌다.

지난달 24일 텍사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두 차례 볼펜에서 공을 던진 양현종은 타자를 세위하고 던지는 라이브 투구를 거쳐 조만간 시범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다.

빅리그 승격이나 마이너리그 잔류냐를 두고 매 경기 생존의 갈림길에 선 양현종은 무조건 첫 등판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올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던지는 꿈을 이룰 수 있다.

한국프로야구 공인구보다 표면이 미끄러운 메이

저리그 공인구에 적응하는 게 첫 번째다.

양현종은 지난달 26일 첫 볼펜 투구 후 미국 언론과 화상 인터뷰에서 “공인구에 90% 정도 적응을 마쳤다”며 “다만 투구 밸런스가 조금 좋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 “공 핑계는 대지 않겠다”고 다부진 각오도 보였다.

라이브 투구에선 공 적응력을 100%으로 끌어올리고, 완벽한 밸런스도 찾아야 실전 등판 체질을 완전히 끝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올해 시범경기에서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

MLB 사무국은 시범경기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시범경기 특별 규정을 발표했다.

선수의 안전과 건강, 코로나19로 원활하지 못한 선수 수급 실정 등을 반영한 조처로 3월 14일까지 열리는 시범경기는 양팀 감독의 합의로 5이닝 또는 7이닝만 열린다. 3월 15~31일 시범경기는 7이닝으로 제한된다. 또 3월 14일까지 열리는 경기에서 수비 팀 감독은 공격 팀 한 타자의 타격이 완료됐다면, 마운드에 있는 투수의 투구 수가 20개를 넘었을 때 스리 아웃(3아웃) 이전이라도 이닝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3일 텍사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나왔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투아웃에서 이닝을 끝냈다. 우드워드 감독은 1회에도 아리하라가 홈런을 맞고 2사 후 볼넷을 허용하자 이닝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2이닝 연속 이닝을 정상대로 매듭 짓지 못한 아리하라는 공 41개를 던졌다.

AP 통신과 일본 언론을 보면, 아리하라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질 수 없었다”며 “타자들의 스윙이 빠르고, 힘이 있어서 더욱더 집중해서 컨트롤의 정확도를 높여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AP 통신은 일본 공인구보다 미끄러운 MLB 공인구에 여전히 적응 중이라는 아리하라의 코멘트를 곁들였다.

올 시즌 텍사스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뭘 것으로 보여 입지가 제법 탄탄한 아리하라의 첫 시범경기 등판은 양현종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양현종이 아리하라와 반대로 정해진 투구 수 40개 내외에서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로 이닝을 제대로 끝낸다면 빅리거로 가는 길은 활짝 열린다. /연합뉴스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선임

해외 명문 클럽 경험, 선수 육성 전략 수립 등 조건

대한축구협회(KFA)는 프로축구 강원FC의 이영표(44) 대표이사와 김기홍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63)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KFA는 이 대표이사가 에이트호변(네덜란드), 토트넘(잉글랜드) 등 해외 명문 클럽에서 뽐낸 경험을 바탕으로 축구 저변 확대, 선수 육성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그가 현직 프로구단 대표이사로서 K리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많은 조언 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홍 부회장은 기존 조현재 부회장이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부회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새로 선임됐다.

김 부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국장, 관광국장, 미디어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스포츠 행정 전문가다.

김 부회장은 대관 업무와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등을 주로 맡는다. /연합뉴스



앞서 이용수(세종대 교수), 최영일(전 국가대표), 김병지(김병지스포츠문화진흥원 이사장), 김대은(전북축구협회장), 홍은아(이화여대 교수·전 국제심판) 부회장을 선임한 KFA는 이번 이영표, 김기홍 부회장 선임을 끝으로 총 7명의 부회장단 구성을 완료, 제54대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연합뉴스